



박홍석(왼쪽에서 네번째)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등 광주·전남·전북지역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이 4일 오전 광주상에서 호남고속철 서대전역 경유안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서대전 경유’ 문제 결국 국회로 가나

국토부 6일 예정 KTX 호남선 노선 결정 연기 움직임

파장 고려 새정치 전대 이후로... 호남 9개 상의 반대 공동성명 박기춘 국토교통위원장 “10일까지 합의 안되면 국회서 논의”

호남고속철도 노선 결정이 연기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3월에서 4월로 연기된 개통일이 또 연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6일로 예정됐던 호남고속철 종합운영계획 승인을 다음주로 연기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일인 8일 이후로 승인 여부가 연기됐다는 말도 나온다. 서대전역 경유로 결론이 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치적 고려를 담아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일인 8일 이후로 승인 여부가 연기됐다는 풀이다.

특히 갈등의 해법을 찾지 못할 경우 국토부가 오는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대로 업무보고 일정은 있는 만큼 이후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호남고속철 문제가 국회로까지 확산할 경우에는 개통일의 추가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대호는 “앞으로 오는 6일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박기춘 국토교통위원장도 이날 “광주를 비롯한 호남의 열망에 기본적으로 부합하면서도 대전권역의 주장도 함께 충족할 만한 해법을 정

부와 함께 고민 중”이라며 “예전 철도파업을 해결했던 각으로 양쪽의 갈등을 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위에 대한, 전남, 전북, 충남, 충북 등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고르게 분포돼 있어 쉽게 결론이 내려질지는 미지수다. 새정치연합 광주, 전남, 전북, 충북 지역 국회의원 일동은 이날 전체 의원들에게 ‘호남고속철 서대전역 경유안 반대’ 서신을 보내 “박근혜 정부는 지역 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서대전역 경유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원칙과 정의의 차원에서 풀어가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호남고속철 개통일이 또 연기될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잦은 일정 변경은 서대전역 경유로 악화된 지역민심만 자극할 뿐이어서다. 이날도 호남지역 9개 상공회의소가 KTX 서대전역 경유를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대 여론이 들끓었다. 광주·목포·순천·여수·광양·전주·익

산·군산·정읍 등 9개 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광주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건설된 고속철도가 오히려 지역갈등을 촉발시키고 있다”며 정부와 코레일의 KTX 운행계획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들은 “지난 10년간 고속철도 개통을 손꼽아 기다려왔던 호남인들은 실망감과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며 “개통을 눈앞에 두고 서대전역 경유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박홍석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은 “9조원에 가까운 막대한 국민혈세를 쏟아 부은 국책사업인 만큼 정부는 일부 특정지역의 발전논리나 정치논리에 휩쓸리지 말고 호남고속철도의 건설취지와 목적에 맞게 서대전역 경유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상공회의소는 이날 채택한 공동성명서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 각계에 전달할 계획이다. /박진표기자 lucky@

파독 간호사 시절, 밤마다 외로운 붓질



(102) 국제시장

영화 ‘국제시장’이 천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새해에도 다양한 화제들이 쏟아지고 있다. 영화 한 편의 여파로 국제시장과 부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하니 부럽기도 하고, 당담아 우리 동네 말바우시장을 지나는 발걸음도 정겨워진다. 나라가 가난하면 국민이 고생하는 법이어서 영화 속 사연들마다 가슴 아렸지만 특히 파독 간호사와 광부가 된 주인공 이야기는 눈을 땀던 대목이다.

오십년 전, 1만8000 여 명의 파독 간호사와 광부들의 임금을 담보로 빌린 차관과 이들이 국내로 송금한 외화는 우리 경제가 눈부시게 발전하는데 초석이 되었다. 가난한 부모형제를 위한 눈물겨운 헌신이기도 했다. 한국의 파독 광부나 간호사들 중에는 주경야독 갖게 되는 등 독일 주류사회로 진입하기도 해 독일인들은 지금도 한국인들의 저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한다.

담양 출신인 재독작가 송현숙(1952~)도 파독 간호사 출신이다. 어린 간호사 시절 밤 근무할 때마다 일기형식으로 그렸던 그림을 모아 함부르크 미대에 제출, 장학금까지 받으며 입학하게 된다. 작품 ‘열아홉 개의



송현숙 작 ‘열아홉개의 획’

획’(1991년작)은 수직으로 그어놓은 두 개의 기둥 위에 수평으로 굵은 선의 붓자국을 남겨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다리’를 표현하고 있다. 두 기둥 사이에 팽팽하게 묶여있는 베다리는 외국 생활의 낯설음과 긴장감, 한국과 독일의 이질적인 두 문화를 살아온 작가의 삶을 은유적으로 이어주고 있는 것이다.

화가는 86년 함부르크 미대 교수였던 남편 요헨 힐트먼과 함께 전남대에 1년간 한국미술을 공부한다. 힐트먼교수는 다음 해에 전남대 교환교수로 머물면서 우리 민중문화에 관심을 갖고 답사한 기록을 담은 책 ‘미륵’을 출판해 운수자를 유럽에 널리 소개하기도 했다.

화가는 오랜 독일 생활에도 불구하고 고향 무월리에서 방귀 올라온 듯 쪽진 생머리에 순박한 외모, 번치 않은 전라도 사투리를 구사한다. 오늘 한국인들에게 잊혀져가고 있는 고향, 사투리, 무속, 관습이 먼 타국에 있는 그의 일상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박사>

중앙-지방, 자치단체간 갈등 민간전문가 ‘분쟁타터’가 중재 나선다

행자부 조정 제도 연내 도입

행정자치부는 중앙과 지방, 또는 자치단체 간 갈등이 분장으로 악화하기 전 민간인 전문가가 개입해 조정·중재역할을 하도록 하는 ‘분쟁타터’ 제도를 올해 도입할 계획이라고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현재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사이 또는 자치단체끼리 분쟁이 발생하면 행정부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절차가 공식 가능하다. 이러한 분쟁조정절차에 돌입하면 사회적인 갈등이 깊어지고 비효율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앞서 중립적인 민간 전문가, 이른바 ‘분쟁타터’가 개입해 갈등을 해소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행정부는 설명했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미디어를 빅데이터 기법으로 분석, 갈등 조

집을 조기에 인지하고 이를 관계기관에 전파해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갈등 사전 인지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행정부는 이와 함께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협의를 토로·협의하는 ‘중앙-지방 정책 현안조정회의’를 법령상 기구로 신설하기로 했다. 나아가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감사를 받을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지방규제를 개혁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을 추진하려는 지자체 공무원이 상급자치단체를 통해 행자부에 컨설팅을 의뢰하면 행자부는 관련법령 검토와 부처협의 등을 거쳐 해법을 제시하고, 해당 공무원은 감사를 면제받게 된다. 지방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도입되는 책임윤면동제는 군포·시흥·원주에서 상반기부터 시범 시행된다. /박진표기자 jkpark@kwangju.co.kr

감사원 을 감사운영 방향

황찬현 감사위원장이 4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감사운영 방향은 재정건전성 제고와 경제활력 회복 지원에 방점이 찍혔다. 감사원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와 복지육구의 분출 등 올해 감사환경을 분석해 이 같은 감사운영 방향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재정사업 효율화, 지방재정 건전화> =감사원은 복지·SOC·정보화 등 대규모 재정사업의 집행실태 전반을 점검, 부정수급·사업 간 중복 등 누수·비효율 요인을

재정건전성·경제 살리기 지원 역점 지자체·교육청 재정 운용실태 점검

제거할 계획이다. 재정통제가 느슨한 주요 기금에 대한 점검도 강화될 예정이다. 복지사업 재정지원이나 일반철도 건설, 국가통합교통정보체계 등이 대상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전시성 사업의 타당성을 심층 점검해 무분별한 예산집행을 차단하고, 교육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실태도 점검한다. 지난해 실시한 ‘공공기관 경영관리’ 감사결과와 이행실태도 점검해 방만경영 재발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불합리 규제개선, R&D 관리체계 전반점검> =감사원은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거부 등 숨은 규제를 발굴, 정비함으

써 규제개선의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금융당국의 인허가 프로세스 등 규제관리 시스템을 점검해 금융권의 보신주의 관행 타파에 나선다. <안전사고지대 해소, 의료·교육 부담 완화> =감사원은 안전사고지대 해소를 위해 향후 3년간의 ‘안전감사 로드맵’을 수립해 안전취약 요인을 순차적으로 제거하기로 했다. 복지시스템은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하고 서민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우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비 지급 및 관리실태를 점검해 가계의 의료비 절감 방안을 모색한다. /연환뉴스

밝은광주안과

축 건물 전층 안과병원운영

6/7F 라식센터
4/5F 수술센터
2/3F 외래진료

- 2년 연속 대한민국 의로서비스 대상
- 라식수술실 4곳 및 레이저 7대 보유
- 안구건조증 거의 없는 스마일 수술 시행
- ‘레인드롭’ 노안시력 교정술 시행

백내장 4無 수술
無통증·無출혈·無봉합·無입원 수술가능
백내장 +노안+난시를 단한번의 수술로 해결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노모양빌딩을 찾으세요

▲ 문암동 방면
◀ 상무지구 방면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양림지점 652-9203 서동본점 720-2828 월산지점 364-7557

서양새마을금고